제279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78. 3. 26 (1)

예수 부활 대축일

기도서 P. 278 A해
제1독서 (사 도10, 34, 37-43절)
제2독서 (골 로 3, 1 -4절)
복 음 (요 한 20, 1 -9절)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1978년 부활 메시지◇

부활을 사는 크리스챤 생활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묵은 사람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부활을 사는 우리 크리스챤의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게는 「**인간회복**(人間回復)」을, 그리고 크게는 「**사회**(社會)**의 인간화**(人間化)」를 이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돌질주의**가 극에 이르렀고, **인간존엄성**은 여지없이 짓밟혀 날로 **비인간화**(非人間化)의 길을 줄달음치고 있읍니다. **정의**는 빛을 잃고 대신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가 하면, **평화**는 위장된채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는 억압아래서 질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자유**는 도처에서 크게 외쳐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재의 체제하에서 부자유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사랑**에 있어서도 말로만 풍성할 뿐,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닌가! 또한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 역시 지금 이 순간도 밝고 따뜻한 부활의 기쁨은 커녕, 음산하고 어두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밖 사회안에까지 부활시켜드림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결정적 가치인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本文中에서)

김 재 덕 주교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우리는 또다시 알렐루야의 부활절을 맞이했읍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하고, 연중 매주일마다 이를 거듭하며, 또한 매일 미사때마다 「주께서 오실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하고 반복하여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일찌기 사도 바오로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가르침이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것입니다"(I고린토 15, 14)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의 진수이며, 우리 크리스챤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축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깊은 의미를 음미하며, 부활을 사는 우리 크리스챤 생활을 새롭게 다짐해야만 하겠읍니다.

오늘의 영광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까지나 죽음에 대한 승리로서의 영광된 부활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읍니다. 부활의 신비는 사실 죽음과 부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비로소 얻어지는 부활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축일을 또한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가는 「**빠스카의 축제**」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챤 생활이란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생사(生死)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읍니다. 이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묵은 사람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부활을 사는 우리 크리스챤의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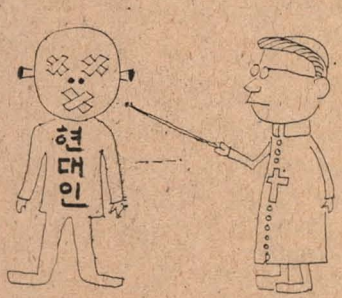
그럼 묵은 사람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생활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적게는 「**인간회복**(人間回復)」을, 그리고 크게는 「**사회의 인간화**(社會의 人間化)」를 이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 개개인이 부활을 통하여 이룩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지난날의 부족과 잘못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마비된 양심의 회복, 즉 인간회복이어야 합니다. 마치 새 봄을 맞아 대지에서는 파릇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온통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가 가책에 못이겨

〈2면에 계속〉

숲정이 산책



제대로 부활 했는지

〈1면에서 계속〉
일어서며 **외치**는 알렐루야의 부활송가는, 이미 죽어버렸던 양심의 과오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부활은총의 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은총을 힘입어 묵은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즉 하느님 자녀로서의 본래의 모습과 건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간회복이며,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은 나 개인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읍니다.

부활의 기쁨은 온 사회에 전해져서 온 세상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인간화를 이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물질주의**가 극에 이르렀고, **인간존경성**은 여지없이 짓밟혀 날로 **비인간화**(非人間化)의 길을 줄달음치고 있읍니다. **정의**는 빛을 잃고 대신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가 하면, **평화**는 위장된채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는 억압아래서 질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자유**는 도처에서 크게 외쳐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재의 체제하에서 부자유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사랑**에 있어서도 말로만 풍성할 뿐,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닌가! 또한 오늘의 우리 한국사회 역시 지금 이 순간도 밝고 따뜻한 부활의 기쁨은 커녕, 음산하고 어두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어두움이 우리사회를 뒤덮고 있음도 이미 오래이건만, 아직도 이 먹구름이 가시지 못하고 있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도 이 땅에는 부활을 사는 생활이 이룩되지 못했음을 말해주며, 특히 우리 크리스챤들이 아직도 자기안에 진정한 의미의 부활을 성취하지 못하고, 따라서 사회에 부활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읍니다.

우리가 오늘의 부활의 참 기쁨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스스로의 생활에 **일대쇄신**(一大刷新)을 가져와야만 하겠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셨으며(로마5, 8~9)또한 인간상호간의 관계 역시 새로운 형제성(兄弟性)으로 묶어주셨읍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로써 이룩하신 새로운 유대 즉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계명 즉 사랑을 실제로 실천해야만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신의**와 **관용**과 **사랑** 등에 있어, 그 넓이와 깊이를 항상 유지하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느님과의 일치, 형제들과의 일치, 이 두가지는 사랑의 양면(兩面)으로 표리일체(表裏一体)를 이뤄, 조화있고 향기로운 크리스챤 생활을 이 세상에 꽃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특히 현대에 사는 우리들로써 **대사회문제**(對社會問題)에 대하여도 크게 관심을 갖고, 교회와 뜻을 같이 해야만 하겠읍니다.

여기서 나는 새삼 1975년 봄 한국 주교단이 낸 메시지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신자들의 각별한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우리는 계속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읍니다. 부정 부패, 사회부조리, 인권유린 등을 고발하는 교회의 발언권은 계속 행사되어야 하며, 고통받는 형제들을 도와주며, 사회질서를 개선하는 교회의 사명수행은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제휴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겠읍니다.」
(1975, 2, 28. 한국 천주교 주교단 메시지)

이렇게 우리 사회를 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로 이끌어 나가는 것만이, 진정 부활의 기쁨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여러 세기 동안 교회는 현실사회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왔음이 분명합니다. 즉 교회는 성(聖), 세상은 속(俗)이라는, 이른바 성속구분(聖俗區分) 정신에 젖어 세속을 지나치게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동안 세상은 과학과 기술문명의 급격한 발전으로 과학만능주의(科學萬能主義)와 신무용론사상(神無用論思想)이 팽창하게 되었고, 따라서 한때 교회로부터 소외당했던 사회는 이제 오히려 교회를 외면하는 현상을 빚어, 교회는 날로 고립화되어만 가고 있읍니다 여기서 늦게나마 교회가 새롭게 눈을 뜨게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최이며, **현대세계의 사목헌장**의 반포입니다.

이에 우리는 **현대세계안에 있어서의 교회의 사명**을 더욱 절감하면서, 모처럼의 **교회의 현대화작업**에 발맞추어, 그동안 우리가 마치 교회안 무덤속에 피셨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교회밖 사회안에까지 부활시켜드림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결정적 가치인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을 사는 참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 전주교구장)

(환) 파티마의 성모 순례단 전주 방문 (영)

일시 : 4월 14일(금) 오전 11시
장소 : 파티마 새성당(전주시 효자동)

평화의 파티마 순례단이 북한 공산당의 회개를 기도하기 위해서 4월 13일에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평화의 성모상은 13일에 서울을 거쳐, 14일에 전주·대전·부산, 15일에 대구·임진각(철야기도), 16일에는 인천을 순방하십니다.

우리 교구를 방문하시는 평화의 성모님을 환영하기 위해 우리의 정성을 봉헌합시다.

※ 교구 신자에게 부탁드리는 협조사항

□예물…로사리오 기도 100만번
(3월 20일부터 금년 성모성월 마지막날까지 모든 신자 특히 레지오 단원들은 묵주의 기도 100만번 바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십시다. 단원들은 주간 활동으로 하세요)

□화환…각 꾸리아 단위로 봉헌

□단기…각 쁘레시디움 단기 지참

주관 : 레지오 마리에 파티마의 모후 꼬미시움 (2-3222)

"[不正의 냄새]물씬거려도 우리는 만성이 되었는가"

김 수 환 추기경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18일, 부활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 「우리의 현실은 한마디로 眞理는 감추어 지고 正義는 너무나 무력한 세상이며, 이는 예수 수난의 비참과 자신들의 무력함을 체험한 끝에 실망과 체념·좌절에 빠져 구원을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의 상태와 흡사하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또 「사회의 구석 구석에 不正의 냄새가 물씬거려도 우리의 코는 이제 만성이 되었으며, 날이 갈수록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여 良心의 소리와 眞理로 향한 갈등을 망각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믿음과 열의로, 希望이 없어 보이는 오늘의 현실에 희망을 불어넣자」고 호소했다. (中央日報 3月 18日字 7面에서)

성 명 서

최근 한국의 기독교 도시 산업 선교회와 가톨릭 노동 청년회를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으로 왜곡 선전하여 선량한 노동자들과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대단히 불행하고도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시 산업 선교는 교회의 다양한 선교 영역의 하나로서 불행한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선교 사업이다. 이러한 선교 활동을 공산주의 활동으로 왜곡하는 일로서 "산업 선교는 무엇을 노리나"라는 저서를 전국에 배포하고 있는 사실과, 최근에 일어난 동일방직 사건을 정부가 방관 묵인하고 있는 처사는 분명히 오늘의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여론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불미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정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엄중한 태세로서 수습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78년 3월 18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 김 해 득
총무 김 관 석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임택진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독	김창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조덕현	구세군 대한 본영 사령관	김해득
대 한 성 공 회 주 교	이천환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조용술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 금 님 찻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 원 준(야고버)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아크릴·아취·실내장치·종각간판

전 주 광 고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 감초당 약국 앞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허30호

새마을보일러 전북총판

지 역 대 리 점 모 집
중 앙 설 비 상 사
전화 ③ 5614
전주시 금암동 710~11

난 방 시 설 은

한국 온수 온돌

이리 구시장 ☎ 8629
전주 최정식 ☎ ②8342
군산 청과시장 ☎ 3032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타◎

영 진 약 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전주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③ 4577, 578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공지사항

1. 사회 정의 세미나(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주관)
   ① 때 : 3월 27일〈월〉 오전 11시 ② 곳 : 가톨릭 센타 강당
   ③ 주제 : 1. 노동 현장 보고 2. 사회 정의에 대한 신학적 고찰 ④ 참가비 : 500원
2. 3월 정의 평화 미사(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주관)
   ① 때 : 3월 27일〈월〉 오후 7시반 ② 곳 : 중앙성당 ③ 주례 : 김재덕 주교
   ※ 전주시내 본당은 당일 저녁 미사를 없이하고 모든 신자들이 정의 평화 기원 미사에 참여토록 할 것
   ※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및 각 기관과 액션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람
3.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한 돼지 저금통에 자신의 정성을 담아 봉헌합시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용 독
보좌 신부 김 진 석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축 부활
2. 사제양성 후원회(돼지) 저금통 가져 오세요
3. 판공성사 안보신분 : 새벽, 저녁미사 전후로 보세요
4. 유아세례 : 31일(금) 어머니 미사후
5. 주일 미사때 소지품 주의 하세요,
6. 어머니, 청년 합창단 수고 하셨읍니다
7. 양로원 개원 했읍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들 쉬어 가세요

□ 지난주 봉헌금 : 148,655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김 성 록

1. 사도회 상임위원회 : 오늘저녁 8시
2. 재속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3. 애령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4. 본당 확인지도 : 3월 29일(수) 오후 1시부터 교구에서 나옵니다
   (사도회 임원, 공소 회장님들은 오후 1시까지 본당에 나오셔서 대기 하세요)
5. 부활주일 아동미사 : 오늘 오후 3시
   (어린이들 꼭 보내 주세요)
6. 대학생회 새 임원 : 회장—이시몬(영중) 부회장—김리디아(용미) 총무—최바오로(중식) 첫 모임 : 4월 지도교수—이홍재(아타나시오)
7. 본당 울뜨레아 : 4월 2일 오후 7시 30분 꾸르실료 스타의, 형제 자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8. 레지오 마리에 단장님 모임 : 3월 31일(금) 오후 7시반
9. 교무금 납부의날 : 매월 마지막 주
   (다같이 분납제의 원칙을 실천 합시다)

축 결혼 : 3월 28일(화) 정오
신랑 : 김진상(아오스딩) 신부 : 이영민(모니카)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축 부활 대축일
   애령회 : 10시 미사후
2. 형제회 월례회 : 3월30일 오후7시 〈한형수 형님댁〉
3. 부활 판공 못보신분 미사 전후에 보십시요
5. 신용 조합 임시이사회 : 3월28일 오전10시

□ 지난주 봉헌금 : 52,5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1. 예수부활 주일 공식 미사후 : 요안회 월례회
2. 신용조합 이사회 : 공식 미사후
3. 살찐 돼지 빠짐없이 완납 바랍니다
   〈구역장님, 반장님 협조바람〉
4. 3월17일 단식한 성금을 사무실에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도회 월례회 : 4 월2일
6. 숲정이 신용조합에 푼돈저축하여 내가정에 행복을…
7. 중, 고생Call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 4월1일

□ 지난주 봉헌금 : 104,59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유 제 상

1. 신학생 후원기금 구좌 신청해 주신분
   유제상, 고정수, 홍정애, 서정옥(각 1구좌씩)
2. 부활초 기증 : 최안나(정자)
3. 축 ! 영세 : 미사후(환영식)
4. 주일학교 부활 대축일미사 : 오후 3시 교리 2시
5. 사제 양성 후원 저금통 다음주 까지는 완납을
6. 매월 첫째 목요일은 성시간 행사 : 오후 8시
7. 봉헌은 정성을 다해서 1/10조 정신으로
8. 본당 확인지도 : 3월30일(사도회 임원, 고문, 감사, 반회장, 각 신심단체 간부들은 12시반까지 참석 바랍니다. 본당)

□ 지난주 봉헌금 : 89,54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사제관 회의 실)
2. 반회장 회의 : 3월27일(평화미사 관계로 연기)
3. 부녀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4. 돼지 저금통, 인성회(단식), 예루살렘 성지보호 헌금봉투〈다음 주일(4,2)내주시기 바랍니다
5. 교리교사 희망자 : 이젬마, 최스테파노, 최제노베파, 김베레사 아직 2명이 부족합니다, 신청 바랍니다
6. 오늘 1일교장 : 유스테파노(덕열)형제님
   다음주 1일교장 : 조바오로(영호)형제님
7. 복자 확인지도 : 3월31일 (사도회 임원, 고문, 감사, 반회장, 각 신심단체 간부들은 12시 반까지 본당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판공성사 아직 못보신 분들은 빠짐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44,27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보좌 신부 유 종 환
사도 회장 유 석 종

1. 부활 신학생 후원 저금통 반환
2.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1시반
3. 축 ! 첫 영성체 어린이들
   축 ! 부활 영세 교우 환영
4. 파티마에서 기증한 성모상 새성당 도착
5. 임진각(자유다리)평화미사 참가자 신청 4월16일출발
6. 성당 의자 신입 헌금 : 472,000원(명단 다음 발표)
7. 새성당 환경 정리 봉사활동 참여요망

□ 지난주 봉헌금 : 200,780원

* 인쇄·전 주 보 광 출 판 사 * ☎ ③ 3272